



‘훽날리는 꽃바람’에 설레고 들뜨게 하는 봄소풍

사계절 화사한 꽃과 싱그러운 자연이 아름다운 고창군에서 '제3회 벚꽃축제'가 열린다.

고창벚꽃축제는 '기다렸나, 봄'을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727번지 일대에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계속된다. 석정 벚꽃길은 수령 20년 이상 된 벚나무들이 1km에 걸쳐 장관을 이룬다. 해마다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벚꽃 명소 중 하나다.

▲“야간 벚꽃놀이는 고창이 최고예요”

야간에 조명에 비친 석정 벚꽃길은 봄철 최고의 볼거리로 평가되고 있다. 고창군은 이곳에 특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 야간 불빛에 비친 벚꽃 터널의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보다 조명구간이 확대되고, 하트·천사의 날개 등 다양한 포토존 조명을 추가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왕벚꽃 터널 등 벚꽃 구간에는 벚꽃과 어울리는 순백색의 아름다운 LED조명이 설치되고, 100여 그루의 수목들에는 흡사 별빛이 쏟아지는 느낌의 트리조명과 바닥경관 조명이 연출된다.

첫날(4일)에는 어린이공연(서커스, 버블쇼)이 벚꽃축제 개막을 알린다. 지난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웠던 탓에 봄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고창군 아이들을 불러모아 벚꽃

특수 야간 조명시설 설치로
벚꽃 터널 아름다운 장관 연출
공연부터 체험까지 '다채'
30분 간격 셔틀버스도 운행

길 걷기, 어린이뮤지컬, 솜사탕 아트쇼 등이 열린다.

오후 2시에는 14개 읍·면 주민들과 사전 신청자들이 이색복장을 착용하고 석정벚꽃길 나들이에 나선다. 벚꽃 축제의 본격적 시작에 앞서 전야제 행사가 진행되고(김현, 윤수, 정해준, 김다현 등) 밤에는 형형색색의 야간 조명이 벚꽃의 매력을 선보이며 환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4일 저녁에는 청사초롱을 들고 벚꽃길



을 걷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둘째날(5일)에는 어린이 대상 인기캐릭터(브래드 피트) 실어송 콘서트가 열리고, 오후에는 14개 읍면 연합 게임대회(스피드 쿵쥔기 등)이 펼쳐진다. 저녁 7시에는 주무대에서 개막식이 열리고, 인기가수(케이시, 케이윌) 초청 공연도 예정돼 있다.

축제 마지막날(6일)에는 고창농특산물을 활용해 가족 방문객 대상 요리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인 '고창벚꽃 200인의 요리사! 고창에 꼬치다'가 열린다. 오후에는 군민대상 노래, 춤,

악기연주, 공연 프로그램으로 화려했던 축제를 마무리 한다.

상설프로그램으로 '봄봄봄 데이트'는 한지꽃만들기(4일), 캘리그래피(5일), 자개관만들기(6일)를 통해 재미난 작품을 만들어 보며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사진 콘테스트, 고창 그림보(벚꽃축제 그림경연대회), 봄봄 플리마켓, 벚꽃 푸드존도 운영된다.

▲방문객은 편하게, 벚꽃은 아름답게

고창군은 방문객 편의와 아름다운 벚꽃을 선사하기 위해 초간장 상태로 수차례에 걸친 교통 대책회의와 주·야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마음 편히 찾아올 수 있게 터미널부터 축제장까지 매일 30분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인생샷 찰칵’ 고창의 대표적 벚꽃명소 ‘고창읍성’·‘고창꽃동산’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 외침을 막기 위해 백성들이 직접 자연석을 쌓아 만든 성곽이다. 매년 이른 봄이면 화사한 순백의 벚꽃이 곡선의 성곽과 어울려 절경을 이룬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듯 훽날리는 성곽 위를 걸으면서 봄날 최고의 호사를 누리보자.

고촌마을 뒤편 꽃동산(배수지)도 고창 최고의 벚꽃명소로 손꼽힌다. 동네를 에워싼 산자락에 산벚꽃이 피어나며 희고 붉은 꽃세상이 열린다. 꽃동산 정상에 서면 고창읍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멀리 고창천과 읍성의 꽃잔치가 근사한 풍경을 만든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만개한 벚꽃을 100배로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품격 높은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며 “벚꽃과 세계유산이 어우러진 고창으로 오셔서 벚꽃비를 맞으며 가족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